

문단의 다양한 흐름 주도한 젊은 목소리 두드러져

2001년 문학계의 성과와 과제

고봉준 | 문학평론가

새로운 세기를 맞이해 다소 격양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2001년의 한국 문학이 문학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우리의 선부른 기대와는 달리 올 한해의 문학적 흐름은 결코 21세기적 징후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들을 생산하지는 못했다. 미당에 대한 재평가 작업과 특정한 문학상을 둘러싼 잡음, 이문열 논쟁 등 다양한 논쟁들이 오고갔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문학적 현실은 초라하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분명 우리 문학은 다양한 흐름을 보여줬다. 따라서 문학의 다양한 흐름을 한정된 지면 속에서 분류하고 평가하는 작업이란 어쩌면 애초에 아무것도 평가할 수 없음을 시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양성이란 결코 하나의 흐름 속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이다.

젊은 시인들의 개성과 소설의 실험정신 돋보여

2001년 시단에서 주목할 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폭발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생태

론적 경향이 점차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생태론적 사유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근대적 관계를 비판하고 반성함으로써 탈근대적인 인식론으로 확대되기도 했는데, 특히 불교적 사유와의 친연성은 이런 경향에 더욱 진지한 철학적 무게를 더해줬다. 그러나 생태론적 시들은 대부분 자연 환경 그 자체에 함몰됨으로써 새로운 시적 비전이나 관계를 열어보이지는 못했는데, 가령 이하석의 《녹》(세계사)은 그 대표적인 경우다. 따라서 올해의 시단에 대한 평가는 생태론적 경향보다는 '시힘' 동인 등의 젊은 시인들이 보여준 다양한 개성과 상상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듯하다. 그 가운데 '소리'와 '어둠'의 세계를 그린 나희덕의 《어두워진다는 것》(창작과비평사)과 '바퀴'의 운명으로서 인간의 삶을 그린 이대흠의 《상처가 나를 살린다》(현대문학북스)는 사물에 대한 관찰과 자신에 대한 성찰을 연결시킴으로써 존재론의 언어로서의 시를 부각시킨 작품이다. 또한 이 원의 《야후!의 강물에 천 개의 달이 뜬다》(문학과지성사)는 탈근대적 사유를 도발적인 문체로 표현함으로써 우리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줬다.

'소설의 시대'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 소설계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실험과 문체를 보여주는 작가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김연수의 《꼰바이 이상》(문학동네)과 김영하의 《아랑은 왜》(문학과지성사), 천운영의 《바늘》(창작과비평사)은 특히 돋보인다. 1930년대의 천재 작가 이 상을 중심으로 그의 작품은 물론 역사적 자료들과 가상의 텍스트까지 끌어들이 복합적인 글쓰기를 보여준 김연수의 《꼰바이 이상》은 허구와 사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소설 문법의 징후를 보여준다. 이런 복합적 글쓰기의 경향은 김영하의 《아랑은 왜》에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이들 소설이 보여주듯 메타 텍스트적인 글쓰기로서의 소설은 결국 이야기꾼으로서 작가의 등장은 물론 허구와 사실 사이의 근대적 통념을 해체시킴으로써 새로운 감수성의 탄생을 예고했다. 천운영의 《바늘》역시 '내면화 경향'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소설계에 신선한 충격을 줄 정도의 입담과 묘사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한반도를 둘러싸고 진행된 비극적 역사와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의 도입과 연관시킨 황석영의 《손님》(창작과비평사) 역시 올해의 문제작이다.

젊은 비평가들의 제 목소리 내기 눈에 띄어

비평계 역시 젊은 비평가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한 해였다. 민족문학론의 대표 평론가인

최원식의 《문학의 귀환》(창작과비평사)은 '문'과 '학'의 비판적 종합으로서 '문학' 개념을 사유하기 시작한 점,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라는 통념적 이분법을 벗어난 점 등에서는 중요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올 비평계의 더욱 중요한 성과는 《비평과 전망》그룹의 활동이다. 이명원의 《해독》(새움), 홍기돈의 《페르세우스의 방패》(백의), 고명철의 《'쓰다'의 정치학》(새움)은 젊은 비평가들의 도발적인 사유가 돋보이는 저서들이다. 우리 문단에 평배한 문학-권력에 대한 정면도전과 비판은 이들의 비평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다. 새로운 세대의 비평가들은 '문학'의 좁은 자장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의 글쓰기가 세대론의 변종이나 주변성으로 전락되지 않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

고봉준씨는 경희대 국문과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2000년 《대한매일》 신춘문예 평론부문에 당선됐다. 현재 문학평론가, 수유연구실+연구공간 '너머'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